

◆ 북미

- 미국 채권보증보험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확대
- NAIC, 2007년 보험민원 통계 발표
- 미국 AIG, 담합입찰 조사에 1,250만달러로 합의

◆ 유럽

- Eurasia Group, “2008년 9대 정치적 위험” 발표
- 영국 히드로 항공사고, 항공보험 요율 인상에 영향없어

◆ 일본

- AFLAC, 의향확인서 전자화 추진
- 생보험회, 향후 1000여개의 병원에 진단서 전자화 지원 계획
- 아이오이손해보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2배로 늘어날 전망

◆ 중국

- 광둥성 보험시장 2020년에 홍콩 추월
- 중국생명(中國人壽), 지난 해 중국 생명보험시장 30% 차지
- 중국 보험업계, 보험영업인력 200만 명 돌파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채권보증보험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확대

- 채권보증보험사인 MBIA가 신용파생상품에서의 손실로 인해 23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기록한 후 미국 금융가의 많은 투자자들은 MBIA의 행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MBIA의 임원진들은 손실발표 직후 MBIA나 다른 채권보증보험사의 신용등급이 AAA아래로 하락할 것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MBIA의 주가는 11% 상승하였고 경쟁사인 Ambac의 주가도 7% 상승하기도 함.
 - MBIA와 Ambac은 모두 회사채와 지자체 채권을 주로 보증하는 회사이며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증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음.
 - 한편 신용평가회사 S&P는 지난달 채권보증보험산업 전체의 신용등급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Wall Street는 MBIA나 Ambac의 신용등급 하락이 전체 금융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뉴욕의 보험감독자들은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채권보증보험사를 투자회사들이 도와주도록 당부함.
 - 그러나 컨설팅회사 Celent의 애널리스트인 Donald Light는 “신용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어느 채권보증보험사도 그들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반면 MBIA의 CFO인 Chuck Chaplin은 MBIA가 여전히 안정적이며 MBIA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모펀드인 Warburg Pincus에 자사 주식 1,610만 주를 매각하여 5억 달러를 조달하였다고 밝힘.

(CNNMoney, 1/31)

□ NAIC, 2007년 보험민원 통계 발표

- 미국 보험감독관 협의회(NAIC)는 2007년 보험민원 상위 5가지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2007년 총 보험민원 건수는 작년보다 3.6% 감소한 222,814건으로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보험민원의 원인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지급거부, 보험금액 불만족 등이 뒤를 이었으며, 보험종목별로는 상해·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NAIC은 Complaint Database System(CDS)를 통해 보험민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접수 후 처리된 것을 대상으로 함.

2007년 유형별 보험민원 Top 5

	건수	비중
보험금 지급 지연	42,524	16.0%
보험금 지급 거부	39,152	14.7%
보험금액 불만족	26,127	9.8%
보험계약의 취소	12,240	4.6%
보험료	11,916	4.4%

2007년 보험종목별 보험민원 Top 5

	건수	비중
상해·건강보험	71,407	36.4%
자동차보험	67,327	34.4%
가계종합보험	24,530	12.5%
생명·연금보험	17,727	9.0%
종합보험	3,675	1.8%

(Insurance Mews Net, 1/30)

□ 미국 AIG, 담합입찰 조사에 1,250만 달러로 합의

- 미국 보험사 AIG는 담합입찰과 관련한 조사와 보험중개회사에 대한 모종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9개의 주 당국 및 워싱턴DC에 1,2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AIG는 그들의 자회사들이 보험중개회사와 모종의 거래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AIG의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단순히 법적절차의 불확실성과 비용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 제기된 혐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함.
-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이번 합의는 플로리다, 하와이, 미시건 등 해당 주의 법무부 책임자에게 전달된 상태임.
- 제기되었던 민원에 의하면 AIG의 몇몇 자회사들이 허위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Marsh를 비롯한 보험중개회사들과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 조사당국은 입찰과정이 공정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보험중개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사를 정해 놓고 있었다고 주장함.
- 또한 거래의 대가로 AIG는 보험계약자 몰래 보험중개회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함.
- 텍사스주 검찰청장인 Greg Abbott는 불법 담합입찰 행위는 자율적 시장 원리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플로리다주는 약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되며 이 돈은 이번 건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상에 쓰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메사추세츠주 검찰청장은 “이번 합의는 보험중개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Insurance Journal, 1/29)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Eurasia Group, “2008년 9대 정치적 리스크” 발표

o Eurasia Group*은 최근 2008년의 가장 심각한 9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사는 세계 최대의 정치리스크컨설팅 기업으로 각국의 정치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AIG, 골드만삭스 등 다국적 기업들과 투자자들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투자 활용가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o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놀라운 사실은 ‘Risk 1’로 지목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으로 ‘자국내 보호와 경제 회복 등으로 인한 미국내 불안’이 첫 번째 정치적 리스크로 지적됨.

-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2008년에도 보호정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내 지도자와 일반 대중 모두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꺼려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 및 무역정책은 안으로 기울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평함.

o 기타 리스크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 Risk 2 : 이란

· ‘이란 고립’은 2008년에도 여전히 위험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미국은 이란의 호전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고립외교 및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이란은 공격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Risk 3 : 이라크

· 안보정세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라크의 정치행정 과정의 총체적 부진상황은 중앙정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임.

· 주요 유전지역인 Kirkuk의 영토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Kirkuk의 쿠르드 지역 편입에 대한 논란과 이를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Risk 4 : Terrorism
 - 다수의 희생자를 양산하는 테러공격에 대한 위험은 알 카에다와 연합체들의 조직 재편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큰 불안으로 남아있는데, 테러공격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곳이 유럽이 될 것이며 미국 또한 2008 대선으로 인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임.
- Risk 5 : Pakistan/Afghanistan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알 카에다, 탈레반 등 이슬람 과격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
- Risk 6 : Russian foreign policy
 - 러시아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성을 발판으로 크레믈린은 주요 국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방해정책을 펼칠 것임. 미국의 일방적 군축론을 거부하는 등 외교정책에 있어 2008년 새로운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것임.
- Risk 7 : South Africa
 - 2007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새 의장으로 Jacob Zuma 전 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남아공은 불확정성에 휩싸이게 됨.
 - ANC는 당 의장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고 있으며 이 경우 2009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Thabo Mbeki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Zuma진영과 Mbeki 현 진영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우려됨.
- Risk 8 - Turkey
 - 터키 총선에서 친이슬람 성향의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압승으로 인한 집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터키의 정치적 불안정성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며 EU 회원가입 문제 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임.
- Risk 9 - Energy bottlenecks in Latin America
 -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지역내 미래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임. 오일상품의 감소 및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정책 대응은 국가마다 다양화될 것임.

(Insurancenewsnet, 1/24)

□ 영국 히드로 항공사고, 항공보험 요율 인상에 영향없어

- Lloyd's에 따르면, 최근 영국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브리티쉬항공 보잉 777 여객기 착륙 충돌 사고)는 항공보험 요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Lloyd's는 승객 항공사고는 19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항공여객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힘.
 - 항공기충돌기록보관소(Aircraft Crashes Record Office's)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사고발생건수는 136건으로 2006년에 비해 28건 감소한 수준이었으며 44년간 사고건수가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됨.
 - 항공보험시장은 2002년부터 주요 서구 항공사들이 항공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제2의 항공시장 개막과 함께 신흥시장에 걸친 항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보험담보를 제공해 왔음.
- 항공보험 요율은 지난 5년간 인하추세를 보여왔는데 시장에서의 과도한 Capacity(담보력)가 요율인하에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Lloyd's를 포함한 항공보험을 인수하는 많은 거대 보험회사들의 담보비율이 감소하였음.
- Lloyd's의 항공부문 언더라이터는 최근 들어 보험료 인하 추세가 멈추기 시작하였으며 지리적으로 특별히 손실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소폭 인상이 있었다고 설명함.
 - 또한 최근 항공부문에서 담보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나 히드로 공항 충돌 사건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가져올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음.
- 한편, 로이드 신디게이트의 Amlin 보험사는 2007년 항공보험시장은 거대 항공사고가 별로 없었음에도 전체적으로 손실을 기록했고 요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브로커사 Aon도 최근 리포트에서 주요 항공사의 4월 계약 갱신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Insurancejournal, 1/24)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AFLAC, 의향확인서 전자화 추진

-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이하 AFLAC)은 28일부터 의향확인서의 전자화 추진을 시작하였음.
- 의향확인서는 판매자가 보험상품을 권유 및 판매 시 추천하는 상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지를 계약 시에 확인하는 서면임.
- AFLAC는 생보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의향확인서의 전자화 추진이 신속한 보험가입 절차와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의향 확인서의 전자화는 AFLAC이 대리점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임.
- 고객은 PC의 화면상에서 의향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전용 단말기로 전자 서명을 실시하고 대리점은 이를 계약인수 부서에 인터넷으로 송신함.
- AFLAC은 이미 청약서와 고지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보험청약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종전의 서면에 의한 계약절차와 비교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류 기재사항의 누락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어 업무 정확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의향확인제도는 2007년 2월 금융청 보험회사감독지침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보험금 미지급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계약 내용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등의 확인 사항을 체크하여 계약한 보험 내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제도임.

(FujiSankei Business I, 1/29)

□ 생보협회, 향후 1000여개의 병원에 진단서 전자화 지원 계획

-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내용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전자화하기 위해 일본 의사협회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의사의 자필 진단서를 간혹 잘못 해석하여 보험금이 부당하게 미지급 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자체조사에서 밝혀낸바 있음.
 - 일본 생보협회는 이와 같은 보험금 부당 미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000여개의 병원에 진단서 작성 전자화 구축을 지원할 방침임.
-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됨.
 - 일본의 생보협회는 보험금 부당 미지급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의사가 작성한 자필 진단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보험회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워드프로세서 방식에 의한 전자 진단서가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켜줄 것으로 믿고 있음.
 - 진단서가 전자화되면 필요 사항의 기입 누락이 있을 시 화면상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됨.
 - 생보협회는 종전에 최고 1개월 정도 소요되던 진단서 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계약자에게도 보험금 지급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진단서의 전자화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 침실수 100개 이상의 병원에 대해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으로 최고 120만엔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음.
 - 1월 한달 동안 이미 100개 이상의 병원이 전자 진단서를 도입하였으며 생보협회는 향후 2년간 1000개 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병원과 생명보험회사를 연결해 전자 진단서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마이니치신문, 1/30)

□ 아이오이손해보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2배로 늘어날 전망

- 아이오이손해보험(Aioi Insurance)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손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두 배로 늘어난 5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지난 29일 수정 전망하였음.
-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252억엔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손실을 전망한 바 있음.
-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화 상품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월 하순에 공개하는 2007년 3분기 말 기준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일본 4위의 손해보험회사로 2007년 3월말 경상이익은 약 272억엔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161억엔이었으며, 서브프라임 관련 평가손실액이 이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이오이손해보험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작년 9월말 1154억엔이며, 동 9월 상반기 결산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전체의 1/4인 252억엔을 평가손실로 처리하였음.
- 그러나, 그 후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가격이 연이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 작년 가을 이후 업계 2위인 손해보험재팬이 서브프라임 증권 관련 금융보증보험 사업에서 약 340억엔의 손실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미츠비시UFJ파이낸셜그룹도 작년 10월 약 270억엔이었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12월말에는 500억~600억엔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금융기관은 당초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에 비해 서브프라임 쇼크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음.

(마이니치신문, 1/30)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광동성 보험시장 2020년에 홍콩 추월

- 2007년 중국 광동성(廣東省) 보험시장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약 800억 위안으로 과거 12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세(33%)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광동성 지역 보험시장이 사상 유례 없는 활황세를 구가하자 광동성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2020년이 되면 광동성 보험시장 규모가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광동성 부성장 송하이(宋海)는 2008년 광동성 보험업무회의에 참석하여 광동성에서 보험산업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며, 2004년 전국 보험시장 1위를 되찾은 이후 그 입지를 강화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보험료 규모는 400억, 500억, 600억 위안대를 차례로 돌파해 왔으며 지난 해 800억 위안을 초과 달성하면서 4년 연속 전국 수위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광동성은 2003년 전국 보험시장의 9.7%를 차지했으나 2007년에는 11.6%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연속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유일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현 광동성 보험업은 보험침투도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고 커버지역이 협소해 여전히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는 2020년에 보험침투도 4.5%, 보험밀도 5,000위안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홍콩 보험시장을 추월한다는 계획을 실천중임.

(남방도시보, 1/29)

□ 중국생명(中國人壽), 지난 해 중국 생명보험시장 30% 차지

- 2007년 중국생명(中國人壽)그룹은 2,207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함으로써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생명그룹의 자산 총액은 1조 1,874억 위안으로 전체 보험시장이 보유한 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해 중국생명그룹은 자산관리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손해보험, 양로보험 등의 영역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생명보험 대리인(생활설계사)을 이용한 손해보험 상품 판매가 9천억 위안(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11.4% 차지)에 이르는 등 그룹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업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중국생명은 주력업종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생각임.
 - 우선, 기존 자원의 효율화를 꾀하고 보유 자원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집행능력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며, 서비스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한편, 중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해 농민을 위한 간이농업보험 분야에서 12.2억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위안의 자선기금을 기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신화망, 1/30)

□ 중국 보험업계, 보험영업인력 200만 명 돌파

- 지난 1월 28일 중국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 등록된 보험영업 인력이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중국 보험업계의 영업력이 전체적으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 12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 분포된 보험영업 인력은 2,014,900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456,811명이 증가(29.3%)하였음.
 - 이 중 생명보험 영업인력은 1,767,024명으로 2006년 대비 약 28.4% 증가하였고, 손해보험 영업인력은 247,876명으로 2006년 대비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7년 영업인력을 통해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3,194억 위안으로 2006년 대비 약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대리인의 영업능력이 강화되면서 보험회사마다 보험대리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보험영업 인력에게 총 444억 위안의 수당이 지급(2006년 대비 4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생명보험 대리인에게 지급된 수당은 395.2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2.24만 위안이며, 손해보험 영업인력에게 지급된 수당은 48.9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1.98만 위안으로 나타났음.
 - 지난 해의 경우 보험대리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고급 인력이 유입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임.

(상해증권보, 2/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1.18(금)	08.1.25(금)	08.2.1(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36	5.19	5.05	-0.14
	美 10년국채	4.03	3.63	3.56	3.59	+0.03
	英 10년국채	4.51	4.44	4.53	4.47	-0.06
	日 10년국채	1.51	1.40	1.48	1.43	-0.05
주가	韓 KOSPI	1,897.13	1,734.72	1,692.41	1,634.53	-3.42%
	韓 KOSDAQ	704.23	666.32	653.78	612.57	-6.30%
	美 DJIA	13,264.82	12,099.30	12,207.17	12,743.19	+4.39%
	美 Nasdaq	2,652.28	2,340.02	2,326.20	2,413.36	+3.75%
	英 FTSE	6,456.90	5,944.40	5,869.00	6,029.20	+2.73%
	獨 DAX	8,067.32	7,401.63	6,816.74	6,968.67	+2.23%
	佛 CAC40	5,614.08	5,092.40	4,878.12	4,978.06	+2.05%
	日 Nikkei225	15,307.78	13,861.29	13,629.16	13,497.16	-0.97%
	中 상해종합	5,261.56	5,180.51	4,761.69	4,320.77	-9.26%
	대만 가권	8,506.28	8,184.65	7,739.59	7,673.99	-0.85%
	홍콩항생	27,812.65	25,201.87	25,122.37	24,123.58	-3.98%
환율	원/달러	938.20	945.00	949.60	945.50	-4.10
	원/100엔	833.33	887.41	886.23	888.04	+1.81
	엔/달러	112.58	106.49	107.15	106.47	-0.68
	달러/유로	1.4722	1.4644	1.4762	1.4860	+0.0098
	위안/달러	7.3041	7.2486	7.2230	7.1822	-0.0408